

ACC_커미션 :

김치앤칩스 라이트 배리어 3rd Edition

기간
2016.06.23 - 10.23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더 그라운드(복합1관)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매주 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오후9시까지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관
아시아문화원

작가
김치앤칩스(Kimchi and Chips)

콘셉트, 디자인, 프로그래밍 : 김치앤칩스(손미미, 엘리엇 우즈)
사운드디자인 : 피정훈
엔지니어링 : 정영재, 성신스튜디오
프로덕션팀 : 이소영, 양윤아, 제임스 잭슨, 여동후, 이동훈

협력제작
아시아문화원

엔지니어링 : 창제작센터 기술팀(한정훈, 김민지, 나대로, 박진홍, 유상욱, 이동훈, 장규오, 최선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기록 : 창제작센터 융복합콘텐츠개발팀(이기영, 박소영, 문은정, 박승혁)
전시사업본부 전시사업팀(권성아, 채문정)

www.ac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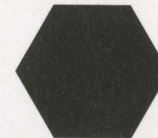
ACC_Commission :

LIGHT BARRIER 3rd Edition
BY KIMCHI AND CHIPS

ACC_커미션 :

김치앤칩스 라이트 배리어 3rd Edition

2016.06.23.(목) - 10.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더 그라운드(복합1관)



ACC_커미션 :

김치앤칩스 라이트 배리어 3rd Edition

김치앤칩스 작품의 예술적 출발은 물질과 비물질, 실재와 가상, 존재와 부재의 개념을 흔들고자 하는 호기심을 근간으로 한다. 그들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공간을 가로지르는 설치물을 만들고, 디지털 안료로서의 빛을 덧대어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는 그림을 그려낸다.

‘허공에 그림 그리기(Drawing in the air)’는 평면을 넘어, 어떠한 형태의 공간도 캔버스 그 자체로 전환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주얼을 창작하고자 하는 김치앤칩스의 실험적 리서치 제목이다. 19세기 후반, 인상주의 예술가들이 빛과 시간이라는 비물질적 요소를 작품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면서 전통적 화풍을 흔들고 이후 놀라운 작품을 창작한 것과 같이 김치앤칩스 또한 기술과 예술의 접점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터치를 개발해왔으며, 〈Light Barrier〉는 이러한 실험과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완성도 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본래 거울이라는 재료는 비춰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사하여 되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며 가상과 실재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거울(혹은 반사하는 특성을 가진 재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념은 김치앤칩스가 탐험하는 실재와 가상, 물질과 비물질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기술은 특정한 재료의 성격을 변형하고 창작할 수 있는 범위를 무한히 확장한다. 김치앤칩스는 그들의 기술을 이용하여, 수백 개의 거울이 제각기 반사해내는 빛 가닥들을 특정한 곳으로 모아 한 덩어리의 빛을 만들고, 이렇게 쌓여진 빛은 연무 위로 실재인지 가상인지 분간하기 힘든 환영과 같은 그림을 그려내는 안료가 된다

단일하며 개별적인 거울의 반사 작용을 컨트롤하여 커다란 그림을 그려내는 〈Light Barrier〉는 창작의 제한적인 벽을 허물었다. 빛으로 그려지는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하나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며 진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우리의 삶이 찬란한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또 다른 의미를 탄생시킨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작가노트 중에서

